

2024년
고3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 별을 보여 드립니다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녀석이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사이 '외롭다'는 말의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 넣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A]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붙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도벽이었다.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 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 스스로 말해 올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 몰라라였다.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 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녀석은 물론 근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 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

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체해 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 낼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체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쯤 된 녀석을 우리는 벌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노라는 잔인스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 사건이었다.

[종략 부분 줄거리]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 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뺐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말인가. 그는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생각을 해 본 일은 있지만…… 두 번씩이나 쫓겨가기는 싫었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지.”

그러고는 이제 물결이 가라앉은 강심을 더욱 깊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가만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내려뜨렸다.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그는 기다란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물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 이청준, 「별을 보여 드립니다」

* 지면: 만나서 알 만한 얼굴. 또는 그렇게 얼굴이 익은 사이

학평 변형 문제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유학에서 돌아온 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 ② ‘나’는 ‘그’와 ‘진이’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③ ‘나’는 ‘진이’에게 마음을 품은 ‘그’를 비꼬며 조롱한다.
- ④ ‘나’는 유학에서 돌아온 ‘그’를 만나기 위해 바로 시골로 내려간다.
- ⑤ ‘그’는 다시 영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학평 변형 문제

2.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중심으로 두 인물의 모습을 장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여러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두 인물의 내면을 병치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등장인물을 바라보게 한다.
- ⑤ 공간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 ② ㉡: 망가져버린 ‘그’가 ‘나’에게 소중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 ③ ㉢: ‘그’의 학위는 결국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의미이다.
- ④ ㉣: ‘그’의 도벽이 알려지게 된 계기이다.
- ⑤ ㉤: ‘그’의 말을 믿고 있었던 ‘나’의 놀람과 배신감이 드러난다.

학평 변형 문제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별을 보여 드립니다」에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는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하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간다.

- ① ‘나’는 ‘그’의 두 가지 습벽을 바탕으로 그가 사회적 관습에 속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 ② ‘그’가 망원경을 ‘강물 아래’로 밀어 넣는 것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③ ‘나’는 ‘그’와 ‘진이’의 모습을 보며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 ④ ‘그’는 ‘나’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한 것은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음을 드러낸다.
- ⑤ ‘진이’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물이다.

[5~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녀석 [A] 이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사이 ‘외롭다’는 말의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 넣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붙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 **도벽**이었다.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 스스로 말해 올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 몰라라였다.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 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녀석은 물론 근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 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

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체해 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 낼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체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쯤 된 녀석을 우리는 벌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노라는 잔인스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 사건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 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뺏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

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말인가. 그는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생각을 해 본 일은 있지만…… 두 번씩이나 쫓겨 가기는 싫었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지.”

그러고는 이제 물결이 가라앉은 강심을 더욱 깊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가만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내려뜨렸다.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그는 기다란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물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 이청준, 「별을 보여 드립니다」

* 지면: 만나서 알 만한 얼굴. 또는 그렇게 얼굴이 익은 사이

5. 밑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그’가 ㉠과 같은 행동을 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재미 삼아 장난으로 한 행동
- ㉡ 누군가의 요청으로 인한 행동
- ㉢ 자신을 배반한 친구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
- ㉣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무언(無言)의 시위
- ㉤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

6. <보기>는 ‘그’가 ‘나’에게 한 말이다. 이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밑줄 친 ‘훌륭한 구경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너는 언제든지 나의 훌륭한 구경꾼이었지. 오늘도 구경꾼 노릇만 하면 돼.”

- ① ‘구경꾼’이란 ‘방관자(傍觀者)’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 ② ‘훌륭한’이란 수식어는 ‘그’가 느낀 서운한 감정에서 나온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가 잘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은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발언이다.
- ④ ‘그’가 힘들 때나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랄 때, 그렇게 해 주지 못한 친구에 대한 완곡한 질책의 표현이다.
- ⑤ ‘강 건너 불구경’이란 속담에서처럼, ‘그’의 아픔을 남의 일 보듯 한 친구들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다.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과 내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관찰하며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내면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정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8. [A]에서 ‘그’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의미의 시어를 찾으시오.

- 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 김춘수

- ②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 이용악

- ③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 ④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 이육사

- 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가 유학에서 돌아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 ② ‘진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와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다.
- ③ ‘나’와 ‘친구들’은 ‘그’의 도벽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자 한다.
- ⑤ ‘그’는 ‘망원경’을 비싼 값에 팔며 사회로의 복귀를 선택한다.

10. 다음 중 윗글의 ‘그’가 ‘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다고 가정할 때, 그 말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전나무 우거진 마을 /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 ②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 술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 정희성

- ③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 /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 이육사

- ④ 뭐락카노 뭐락카노 / 썩어서 동아뺏줄은 삭아 내리는데 //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박목월

- 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자이다.
- ② '진이'는 '그'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인물이다.
- ③ '그'는 '도벽'과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로,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④ '망원경'은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⑤ '영국'은 '그'가 그리워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그는 돌아와서 ~ 주변머리도 없었다.’, ‘그사이 ~ 한땀다.’를 통해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 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와 ‘진이’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③ ‘나’는 ‘진이’에게 마음을 품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모두 나의 내면 생각으로만 제시될 뿐, ‘그’를 조롱하거나 비꼬는 ‘나’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를 통해 ‘나’가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바로 시골로 내려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그’가 다시 영국으로 간다고 한 것은 그의 거짓말이다.

2. [정답] ①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 내려 가고 있었다.’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는 서술자인 ‘나’의 서술을 통해 ‘그’의 삶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A]에서는 ‘나’의 서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여러 인물의 말이 인용되어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서술자인 ‘나’의 서술만 제시되어 있을 뿐, 두 인물의 내면을 병치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정답] ①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으나 아무도 ‘그’의 도벽에 대한 이야기를 맞대 놓고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해 올 때가 있겠지.’라며 그의 도벽을 외면하고 있다.

② ㉠은 ‘그’가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할 때 무서운 파괴력을 지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가 ‘나’에게 소중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은 ‘그’의 삶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일 뿐, ‘학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그’는 영국에서 학위를 갖지 못하고 돌아왔다.

④ ㉢은 ‘그’가 망원경의 장례를 치루는 사건을 말하며, ‘그’의 도벽은 이전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⑤ ‘나’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의 말에 배신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4. [정답] ④

‘그’는 ‘나’에게 자신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음을 고백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과 같은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① ‘나’는 ‘그’의 ‘도벽’과 ‘거짓말’이라는 두 가지 습벽을 바탕으로 그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② ‘그’가 망원경을 ‘강물 아래’로 밀어 넣는 것은 계속해서 꿈을 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③ 뒷글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뒷글에는 ‘진이’가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정답] ④

거짓말과 도벽의 피해자는 모두 ‘그’의 친구들이다. 이 글에서 친구들은 ‘그’가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 있어 주지 않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즉 도벽과 거짓말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절규이자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①, ② ‘그’는 자신을 외면한 친구들에게 ‘도벽’과 ‘거짓말’을 하며 진정한 관심을 소망한다. 이를 단순히 재미를 위한 행동이나 누군가의 요청으로 인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친구들을 골탕을 먹이기 위한 행동으로는 볼 수 있으나, ‘차절한 복수’라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다.

⑤ 거짓말과 도벽을 같은 의도로 봤을 때,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6. [정답] ③

자신을 외롭게 방치한 '나'를 포함한 친구들에 대한 극도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임을 감안할 때, ③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①, ②, ④, ⑤ <보기>의 말은 '그'를 외면한 '나'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친구를 외면한 '나'에 대한 완곡한 질책과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다.

7. [정답] ②

윗글은 1인칭 관찰자인 '나'의 시선으로 주인공인 '그'를 관찰하며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이 작품은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교체되지 않는다.

8. [정답] ①

[A]에서 '그'는 유학에서 돌아온 후 주위의 무관심에 외로움을 느끼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①에서의 '이름'도 존재와 존재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시어로, ①의 화자는 명명 행위를 통해 진정한 관계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② '복된 눈'은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백골'은 부정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 ④ '매운 계절'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 ⑤ '독'은 화자의 강인한 저항 의지를 의미한다.

9. [정답] ④

'그'는 '망원경'을 강물 아래로 밀어 넣으며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 낡은 별의 꿈을 꾸겠지.'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그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그'가 유학에서 돌아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학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약점을 보충해 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기 때문이지 '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윗글에는 '진이'가 경제적인 이유로 '그'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와 '친구들'은 '그'의 도벽에 피해를 입으면서도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 놓고 말하지 않으며 외면하고 있다.

⑤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를 통해 '그'가 '망원경'을 팔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②

'그'는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과 '숲'을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 ①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③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강인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④ 죽은 아우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⑤ 죽은 아내로 인한 슬픔과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